

P-20 치주질환 환자에서 Minor tooth movement를 이용한 치주보철 치료

홍성우*, 유경태, 이승철, 유형근, 신형식
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치주질환에 이환된 성인환자의 교정치료시 치주조직의 손상에 대해서 많은 보고가 되어져 왔다. 이러한 환자의 교정치료시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치주조직이 해를 입는지, 어떻게 대처해야 치주조직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지, 나아가서 어떻게 치료해야 치주조직이 개선되는지를 알아야 한다. 어린이나 청소년 같은 성장기 환자에서는 치주조직에 대한 고려가 다소 없어도 환자의 성장, 발육이 손상 가능성을 보상해 주고 있으므로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. 그러나 치주질환에 이환된 성인환자에서의 교정치료시, 치주조직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는다면 치주조직의 큰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. 치주질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증가된 수직피개, 수평피개, 치축의 변형, 치간이개등으로 인한 기능적, 심미적 부조화의 개선을 위해서 성인교정을 시행할 때 다양한 고려사항을 인지한 후 교정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.